
퇴계-두향 서사자료 검토

박균섭 (경북대학교, 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퇴계-두향 서사자료의 시계열 분석
- III. 퇴계-두향 서사자료의 비판적 검토
- IV. 맺음말

국문초록

퇴계 이황은 1548년 1월부터 9월까지 단양군수를 지냈다. 이때 단양의 기생 두향과 퇴계가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가 언젠가부터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퇴계-두향 서사는 관련 기록 자료에 대한 엄정한 해석과 대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충북 단양은 퇴계-두향 서사의 현장으로 부상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서사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단양에서는 1987년 이래, 단양문화원과 단양군청의 후원 아래 매년 두향제가 연례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계-두향 관련 여러 기록 자료를 중심으로 시계열 분석 및 비판적 검토를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엄밀한 논의 작업을 시도하였다. 검토 결과, 퇴계-두향 서사는 개연성이나 역사성 양 측면에서 자체 동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퇴계, 두향, 퇴계-두향 서사, 두향제, 시계열 분석

1. 머리말

충북 단양은 지리·지형도에서 비균질성이 높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단양지역의 역사·인문·자연 지리적 특성에 대한 여러 기록과 기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저런 여러 입장과 관점을 통해 단양을 형용하고 묘사하는 장면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가장 흡수력이 높은 이야기로는 1548년 단양군수 퇴계 이황과 단양의 관기 두향 간의 사랑 이야기를 들 수 있다. 단양지역이 선계이미지의 연속성과 풍류미담의 확장성을 갖춘 공간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는 이처럼 퇴계-두향 서사도 한몫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일찍이 산수가 좋은 곳으로 이름난 사군(四郡)=사군계산(四郡溪山)=사군산수(四郡山水)로 통하는 네 고을(四郡: 淸風, 丹陽, 永春, 堤川)은 남한강의 상류지역에 자리잡은 곳이자 서울과 영남을 오가는 도중에 자리잡은 고을들이다. 특히 단양은 자연지리·교통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퇴계-두향 서사가 만들어지기 용이한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퇴계 이황은 1548년 1월 충청도 단양군수로 부임하여 그해 10월 경상도 풍기군수로 옮겨가기까지 9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단양을 다스렸다. 그런데, 그때 퇴계는 단양의 관기 두향과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와 함께, 그 얘기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퇴계-두향 서사는 450년을 이어오는 사랑 얘기로 다루어지고 있다. 단양에서는 1987년부터 매년 두향제가 열린데, 두향제는 단성향토문화연구회가 주최하고 단양문화원과 단양군청이 후원해 단양문화보존회 주관으로 연례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심지어 2017년에는 퇴계-두향 서사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공원이 조성되었다. 안동에서도 2009년부터 퇴계-두향 서사를 소재로 한 실경가무극 퇴계연가 <450년의 사랑>이 안동국악단에 의해 공연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사모>라는 제목으로 재해석되면서 『중학교 3학년 음악』 교과서에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 단원에 <사모>가 실리게 되었다.²⁾

1) 단양지역의 역사·인문·자연 지리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조영인, 「단양 관련 인물과 한시」, 『개신어문연구』 30, 개신어문학회, 2009, 130~154쪽 참조.

퇴계와 두향의 만남, 이는 역사적 사실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인 질문일 테지만,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그저 소설가 정비석을 기점으로 삼아 퇴계 연구자 및 후손들의 적극적·주도적인 서사 구성 작업이 추가되면서 퇴계-두향 서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충북 단양과 경북 안동을 2대 기점으로 삼은 퇴계-두향 서사는 450년 전의 낭만-풍류-사랑으로 미화·각색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퇴계-두향 서사의 역사적 실재성을 점검하는 일이 될 것이다.

퇴계-두향 서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9세 기생 두향과 48세 단양 군수 퇴계의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퇴계의 인간미 넘치는 사랑 등으로 형용되고 있지만, 그런 사랑의 정당성 여부 이전에 과연 그 사랑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사랑인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먼저일 것이다. 퇴계-두향 서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문제 이전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랑이었다는 결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퇴계-두향 서사의 역사적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기록 자료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그 검토 과정에 소용되는 자료로는 어떤 것이 있고, 이는 어떤 사실과 연관성을 제시하는가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II. 퇴계-두향 서사자료의 시계열 분석

퇴계-두향 서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유포되었고, 이는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와 배경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퇴계-두향 고사 관련 자료의 추가 발견을 기대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전된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2) 「산수실경 뮤지컬 '사모' 교과서에 실려」, 『대구매일』 2011.6.21.

것 같다. 현 상황에서 볼 때, 기존의 관련 자료를 넘어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 및 해석보다는 기존의 자료에 대한 시계열적·계보학적 점검을 통해 퇴계-두향 연애담이 실존인물의 사실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연계 불가능의 무관한 이야기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지점에 와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수촌 임방(水村 任墜, 1640~1724)³⁾은 1694년~1699년 5년간 단양군수를 지낸 인물인데, 그는 과연 150년 전의 일인 1548년 단양군수 퇴계와 두향 관련 얘기를 어떻게 기술하였는가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임방은 1695년(숙종 21) 단양 유람 기록을 남기면서, 그 과정에서 두양 및 두양묘 관련 짤막한 서사를 기록하였다.⁴⁾ 단양의 기생 두양을 기술하면서, 기생 본연의 이름값(風流債: 풍류를 함께 즐긴 값)에 대한 얘기에 집중되어있다. 두양이라는 기생 이름도 당나라의 명기 두추(杜秋)-두랑(眞娘)의 이름과 친연성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중국 유래설을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임방의 단양 기생 두양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① 두양은 단양의 기생이다. 거문고를 잘 탕고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었다. 스무 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는데 강선대 맞은편 산기슭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였다. 강선대는 대개 그녀가 죽을 때까지 손님들을 따라 놀며 즐기던 곳이어서 죽어서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외로운 무덤 하나 두양의 것이라네. 강선대 아래 초강 머리에 쓴 무덤은 꽃다운 여인 풍류를 즐긴 값이다. 호구에 장사지낸 진랑의 경우보다도 절경이다.⁵⁾

3) 수촌 임방(水村 任墜, 1640~1724)은 자료 ⑤에 등장하는 난당 임매(蘭堂 任邁, 1711~1779)의 조부. 후술할 능호관 이인상의 <수하한담도>는 이인상, 이윤영, 이운영, 임매와의 모임을 그린 그림이다.

4) 『水村集』, 卷3, 「赴忠州春操馬上口占[乙亥]」.

5) 『水村集』, 卷3, 「杜陽墓」. “杜陽丹妓也. 能琴善歌舞. 二十而夭, 遺囑葬降仙臺對麓. 蓋其平生隨客遊宴之地, 死不能忘云. 一點孤墳是杜秋. 降仙臺下楚江頭. 芳魂償得風流債. 絕勝眞娘葬虎丘.” 참고로 정비석은 이 글의 후미에 제시된 시를 “외로운 무덤 하나 두향이라네. 강언덕 강선대 그 아래 있네. 어여쁜 이 멋있게 놀던 값으로 경지도 좋은 곳에 묻어주었네”라고 번역하였고, 최인호는 “외로운 무덤 하나 두향이라네. 강선대 그 아래 강변에 있네. 어여쁜 이 멋있게 살던 값으로 경지도 좋은 곳에 묻어주었네”라고 번역하였다. 참고로 임방의 단양의 경치를 노래한 글로는 『水村集』, 卷3, 「丹溪道中」, 「丹溪望武陵」, 「島潭[二首]」, 「朝雲峰」, 「杜陽墓」, 「早發」, 「舟行[三首]」, 「玉筍遇雨」, 「島潭舟中次亞使金天用

사양재 강호보(四養齋 姜浩溥, 1690~1778)는 1727년의 글에서 뱃사공의 전언과 늙은 기생의 증언을 인용하여 한 단양 기생의 특별한 사연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단양의 한 기생은 평생동안 강선대를 너무 좋아하여 죽을 때에 강선대 건너편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녀는 평소에 뱃속깊이 산수를 애호했기에 발길이 열흘 동안 강선대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마다 얼굴에는 걱정 어린 듯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퇴계-두향 서사가 아닌 어느 한 단양 기생의 강선대에 대한 특별한 사랑 이야기로 특징됨을 알 수 있다.

- ② 강선대의 정남쪽으로 외딴 무덤 하나가 있다. 뱃사공이 가리키며 “이곳은 단양 기생의 무덤입니다. 옛날 단양의 한 기생이 평생 동안 이 강선대를 너무 좋아하여 죽을 때에 “내가 죽거든 강선대 건너편에 묻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도 너를 보러 올 것이다”라고 부탁했기에 그녀가 죽자 이곳에 묻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였다. 나는 그 말이 그다지 믿기지 않았다. 단양에 도착하자 늙은 기생을 불러 그 일을 물었더니, 기생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대강 십여 년이 지났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비록 천한 여자이지만 풍류와 운치는 사내들도 미치지 못하였다. 문사에 능하였고 시율을 잘 하였고 거문고와 노래 솜씨와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 뱃속깊이 산수를 애호했기에 발길이 열흘 동안 강선대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마다 걱정 어린 듯 즐거움이 사라졌다. 평소의 생각이 남달라 세속 일반의 사람이 아닌듯했는데 나이 스물두 살에 병을 앓지도 않고 죽었다. 죽던 날에 간절히 유언을 남겼기에 온 단양읍의 사람들이 그 재주를 아까워하고 그 뜻을 기렸으며 그 죽음을 가엾게 여겨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뒤로 두 명의 감사가 순시 중에 강선대에 올라 기생들을 시켜 술 한 잔을 따라 무덤에 부어 강신을 빌고 갔다고 하였다.⁶⁾

[致龍韻] 등이 있다.

- 6) 『四養齋外集桑蓬錄』, 外集卷12, 「附上游四郡山水記」. “降仙臺直南有一孤墳. 舟人指點曰此丹丘妓塚也. 丹丘古有一妓, 平生酷愛此臺, 臨死留囑曰, 我即死便埋於降仙臺越邊. 若不爾, 我死猶視爾. 既死, 瘞之於此. 余殊未信也. 既至丹丘, 招老妓問其事. 妓曰果然, 其死甫過十餘寒暑矣. 其人雖賤女子, 風流韻格丈夫不若也. 能文詞善詩律, 琴歌容色頗絕倫. 愛山水入骨髓, 足迹旬日不到降仙臺, 則輒愀爾不樂也. 意思飄飄然, 似非塵中人, 年二十二不病而死. 死之日遺囑勤懇, 故一邑人惜其才, 嘉其志而怜其死, 從其願. 其後二監司巡到, 登降仙臺, 使妓輩酌一盃, 酌其墓而去云.” 위의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 『연행록선집보유』(서울: 성

동계 조귀명(東谿 趙龜命, 1693~1737)은 후술할 강한유로 황경원(江漢遺老 黃景源, 1709~1787)과 함께 당대의 문장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조귀명은 1729년(영조 5)의 글을 통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한 단양 기생의 죽기 전의 간절한 소원을 제시했지만, 여기에 퇴계와 단양 기생 간의 연관된 얘기는 일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취적봉 석대를 배경으로 하여 거기에 새겨진 퇴계의 시가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③ 강을 건너 강선대에 올라 화전을 지저먹었다. 강선대는 기생의 무덤을 마주하고 있다. 옛날에 단양의 어떤 기생이 죽으면서 말하기를 “내 놀던 강선대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담의 물가에 물어달라”고 하였다. 민취량이 거문고를 켜고, 덕로가 노래하고, 두 기생이 춤추며 이곳에 조의를 표하였다. 취적봉 석대에 새겨진 퇴계의 시를 보노라니 배는 유유히 흘러 아래로 내려간다. 안개비는 가랑비처럼 내린다. 한벽루는 안개비가 내리는 서쪽 방향에 있다. 바라보니 가물가물하고 어렵풋하다. 강선대를 지키는 선리가 사는 곳이다.⁷⁾

강한유로 황경원(江漢遺老 黃景源, 1709~1787)은 1734년(영조 10)에 월곡 오원(月谷 吳瑗, 1700~1740)과 함께 사군(청풍, 단양, 영춘, 제천)의 계산·산수·강산을 유람했던 사실로 볼 때, 그의 구담 관련 기록도 1734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⁸⁾ 황경원은 “강선대에서 강가의 스물네 개의 봉우리를 바라보니 마치 비녀를 뽑아놓은 듯하다”는 제목의 시를 통해 강선대를 기점으로 한 단양의 선계이미지를 표상하였다.⁹⁾ 황경원의 단양에

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를 인용한 이태희, 「관기 두향을 보는 두 가지 시산: 열녀에 대한 찬사에서 상처받은 예술가의 진혼으로」, 『여성과 역사』 32, 한국여성사학회, 2020, 232-233쪽에서 재인용함. 이 밖에도 신익철·권오영·박정혜·임치균·조용희 역, 『18세기 연행록 기사 집성: 서적·서화편』(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의 『상봉록(桑蓬錄)·상봉록』(pp.142-185) 참조. 위에서 말한 “두 명의 감사가 순시 중에 강선대에 올라 기생들을 시켜 술 한 잔을 따라 무덤에 부어 강신을 빌고 갔다”는 기록에서 감사 한 명은 1717년에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윤현주였다. 자세한 사항은 주 35) 참조.

7) 『東谿集』, 卷2, 「追記東峽遊賞[己酉]」. “涉江登降僊臺, 煎花餅. 是對妓塚. 古有丹丘之妓. 死曰葬我於龜潭之岸. 以望僊臺我所遊也. 閔生琴, 德老歌, 二妓舞之以弔焉. 吹笛峰石臺. 觀退溪詩刻, 順流而下. 煙雨濛濛. 寒碧樓在煙雨西. 望之縹緲. 僊吏居也.”

8) 『江漢集』, 卷1, 「與伯玉東游[甲寅]」.

대한 이야기에는 단양-두향-퇴계 연관설(퇴계-두향 연애담)이 등장하지 않고 단양 구담의 경치를 유람하면서 오랜 옛날 단양군수를 지냈던 퇴계 이황의 인격을 흠모하는 글로 마무리 짓는다.

- ④ 구담엔 거센 물줄기 돌아드는데 조약돌이 네모난 모래섬에 널려 있다. 백백이 우거진 나무들은 가지런한데 아슬아슬 치솟은 바위들은 위태롭다. 고운 산봉우리는 하늘을 찌르는데 나뭇나뭇 구름 기운이 드리운다. 회포 저 너머 강선대에는 아스라이 새 그림자 더디게 지나간다. 퇴계가 예전에 단양군을 다스렸는데 진실로 백세의 스승이셨다. 거문고 소리는 아직도 끊이지 않아 그 여운 강가에 두루 서려 있다. 내가 이곳까지 올라온 것은 퇴계의 여진 그 모습을 흠모해서이다. 굽은 강언덕엔 인가가 고요하고 물가에는 고운 꽃들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다시 또 담계를 감상하기 바라며 오로지 잔물결을 헤치며 간다.(문순공 퇴계선생이 단양군수로 있을 때 이곳에 와서 노닐었다.)¹⁰⁾

단릉 이윤영(丹陵 李胤永, 1714~1759)의 경우를 보자. 이윤영은 아버지 이기중(李箕重, 1697~1761)이 단양군수로 있는 동안 단양 구담에서 5년 가까이 머물렀기에, 단양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보고듣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윤영은 임백현=임매(任邁, 1711~1799)의 얘기를 인용하였는데, 이는 임매가 그의 조부 수촌 임방(水村 任墮, 1640~1724)의 전언을 반복 생산하는 입장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퇴계가 두향을 향해 했다는 첫 얘기는 “너는 비록 천한 기생이지만[爾雖賤人] 오히려 내 마음을 아는구나[猶知我心云云]”라는 말이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이윤영은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未知信否]”고 하였다.

- ⑤ “강선대 맞은편 언덕에 두향의 무덤이 있다. 이미 임매(임방의 손자: 주)

9) 『江漢集』, 卷1, 「降仙臺望見江上二十四峰如抽簪」.

10) 『江漢集』, 卷1, 「龜潭」. “龜潭匯峻流. 巖石布方坻. 森森萬木肅. 矍矍千巖危. 彩峰凌太清. 飄飄雲氣垂. 仙臺隔回浦. 微茫鳥影遲. 文純昔知郡. 信是百世師. 絃歌猶不絕. 餘韻被江湄. 小子躋斯境. 尙慕仁賢儀. 曲岸人家靜. 臨水芳華滋. 還希郊谿賞. 聊以蕩淪漪. {文純公退溪先生, 守丹陽郡, 游於此.}”

의 기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퇴계 선생의 시에 “푸른 물 붉은 산의 경계에, 맑은 바람 밝은 달의 누대라, 신선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홀로 쓸쓸히 배를 타고 돌아오네”라고 하였다. 이것은 대개 차마 잊을 수 없어 간절하게 입을 생각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이 시구를 암벽에 기록하고 돌아오며 종류에서 낭랑하게 읊조리자, 두향이 즉석에서 거문고 곡조에 넣으니 그 소리가 청아하고도 애절했다. 또 만조를 짓고서 이어 말하기를 “아이야 노를 천천히 저어라. 혹 그분이 오실지도 모르지 않니”라고 하였다. 선생이 감탄하며 말씀하시길 “너는 비록 천한 기생이지만 오히려 내 마음을 아는구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다.¹¹⁾

몽오 김종수(夢梧 金鍾秀, 1728~1799)는 노론 벽파(僻派)의 대표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1768년(영조 44)에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로 대제학, 이조판서, 우의정을 지냈다. 김종수가 단양유람기를 남긴 시점(1751)은 그가 식년문과에 급제하기 17년 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김종수는 강선대를 배경과 무대로 삼아 두향-퇴계-토정에 대한 얘기를 들려준다. 거기에 그칠 뿐 퇴계-두향 연애담은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퇴계(시필)-토정(조대)의 연계가 두드러질 뿐이다.

- ⑥ 가벼운 배가 순류를 타고 나는 듯이 빠르게 나아가서 저녁에는 도담에서 자고 아침에 단양으로 가서 아침밥을 먹었네. 사대(상앗대=사앗대) 짓는 소리와 함께 저녁 무렵 석치나루를 지나니 십리 강산에 아름다운 경치가 길게 뻗었네.……돌이 쌓여 우뚝 솟은 강선대는 위는 평상처럼 평평하고 아래는 바둑판을 쌓아놓은 듯하다. 술잔을 들어 두량의 혼을 부르려 하니 아황과 여영의 곡조가 이내 마음을 슬프게 한다.……퇴계의 시필은 푸른 소나무처럼 차갑고 토정의 조대는 옥색 물결처럼 맑다.¹²⁾

11) 『丹陵遺稿』, 卷11, 「降仙臺記」. “降仙對岸, 有杜香塚, 已詳載於伯玄記文矣. 退陶先生詩曰, 碧水丹山界, 清風明月樓, 仙人不可待, 惓惓獨歸舟. 此蓋出於不能果忘, 惓惓思君之意, 題壁而歸, 中流朗詠, 杜香卽入之歌曲, 其聲清悲. 又作漫調以續之曰, 噫兒緩掉了, 猶冀其或來. 先生嘆曰, 爾雖賤人, 猶知我心云云, 未知信否.”

12) 『夢梧集』, 卷1, 「東遊」. “輕舟順流疾如飛, 夕宿島潭朝丹陽, 鳴槳晚過石芝灘, 十里江山氣色長. ……嵯峨積石降仙臺, 上平如牀累如碁, 把酒欲招杜娘魂, 湘君遺調使我悲. ……陶山詩筆翠松冷, 土亭釣臺綠波淨.”

월암 이광려(月巖 李匡呂, 1720~1783)는 선릉 참봉, 명릉 참봉 등을 지냈기에 그의 문집은 『이참봉집』이 되었다.¹³⁾ 이광려는 두향의 무덤을 찾아 시를 읊었다. 이광려는 두향 서사의 전형적인 공간 강선대를 기점으로 두향에 대한 전설을 시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다만 그 애기의 전개 과정에서 강선대-두향의 연결고리는 공고한 반면 거기에 퇴계-두향의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⑦ 외로운 무덤은 국도변에 있고, 버려진 모래밭엔 붉은 꽃이 피어있네. 먼 훗날 두향의 이름이 잊혀질 때면, 강선대 바위도 함께 없어지겠지.¹⁴⁾

서하 임천상(西河 任天常, 1754~1822)은 1785년(정조 9) 1월에는 숙부 임희묵(任希默)의 임소(義興=軍威郡)에 내려가 도산서원을 둘러보았고, 1786년(정조 10) 가을에는 단양을 비롯한 사군(四郡: 淸風, 丹陽, 永春, 堤川)을 유람하였다. 임천상이 문과 증시에 급제한 것은 단양을 유람한 지 10년이 지난 1796년(정조 20) 2월의 일이었다. 임천상은 1786년(정조 10)의 단양 유람을 바탕으로 삼아 단양 명기 두향에 대한 고사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했지만 거기에 퇴계-두향 연관설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¹⁵⁾ 임천상은 두향이 20세에 사망했다고 기록하였는바, 두향은 20세의 나이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퇴계와 연동된 삶의 궤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뒤늦게 만들어진 퇴계-두향 연관설은 허구임을 보여준다.

- ⑧ 두향은 옛 단양의 명기이다. 거문고를 잘 탔고 가무에 뛰어났다. 나이 스무 살에 병으로 죽게 되자 집안사람에게 부탁하기를 “금수산 아래 강선대의 춤 치마와 박자판은 내가 평소 즐겨 놀던 곳이다. 내가 죽으면 꼭

13) 『日省錄』 1778년(正祖 2) 12월 24日, 1783년(正祖 7) 8월 6日.

14) 『李參奉集』, 卷1, 「江行書事[次唐人絕句韻]. “孤墳臨官道, 頽莎映紅萼, 杜香名盡時, 仙臺石應落.”

15) 『窮梧集』, 卷1, 「丙午中秋泮試後[作丹丘行臨發書懷示社中諸友], 「吏隱堂[丹陽東軒]上主伴丈[二十八日風勢殊惡欲遊仙遊洞不果行].

강선대 옆에 묻어달라. 혼백이라도 반드시 함께 하리라”라고 하였다. 관련 이야기는 『수춘집』에 실려 있다. 수춘 임방의 시에 이르기를 “외로운 무덤 하나 두양[杜秋]의 것이라네. 무덤은 강선대 아래 흐르는 초강 머리에 있네. 꽃다운 여인 풍류를 즐긴 값으로 경치도 좋은 곳[虎岡]에 그 여인[眞娘]을 장사지냈네”라고 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 무덤을 보고서 슬픈 마음이 들었다. 단양에 이르러 늙은 노비를 찾았다. 늙은 노비는 여러 기생들이 묘를 지나면서 문득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러 신을 즐겁게 했을 목격했다고 하였다. 다만 두양이 죽을 당시의 사정은 상세히 알지 못했다. 한 선비가 또한 이르기를 “강선대에 무덤을 쓸 것을 유언으로 삼은 것을 보면 그것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고 하였다.¹⁶⁾

연경재 성해응(硯經齋 成海應, 1760~1839)은 1804년 9월 15일~21일에 단양 지역을 유람하고 단양산수기(1804.9.18.)를 작성하였다. 성해응은 단양산수기에서 퇴계가 새긴 글자(‘丹邱洞門’)를 내세우면서 바로 이곳이 청풍과 단양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이 되었다는 얘기, 퇴계의 “푸른 물 붉은 산의 경계에, 맑은 바람 밝은 달의 누대라”는 시구 관련 기록, 수백명(사실상 백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이의 장회나루 강선대에 관한 기록, 그리고 강선대 옆 단양 기생 ‘계향’의 무덤에 대한 기록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성해응이 단양 기생의 이름을 두향이 아닌 계향이라고 기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계향이 죽기 전에 “나를 강선대에 묻어달라[葬我於降仙臺]. 녀이라도 시인묵객과 함께 놀고자 한다[魂得與騷人墨客遊也]”고 했다는 말에서, 1804년 시점에서 두향의 퇴계 정인설은 애초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⑨ 벼랑 입구에 퇴계선생의 ‘단구동문’이라고 크게 쓴 네 글자가 새겨져 있다. ‘단’자는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다. 이곳은 본래 청풍 땅이었으나 퇴계선

16) 『窮梧集』, 卷1, 「杜陽墓[并小叙]」. “杜陽古丹丘名妓也. 能琴善歌舞, 年二十病且死. 囑家人曰, 錦繡山下, 降仙之臺, 舞裙歌板, 吾所樂遊者也. 我死須葬之臺側, 魂魄必依焉. 事在水村集. 水村詩曰, 一點孤墳是杜秋, 降仙臺下楚江頭, 芳魂償得風流債, 絕勝眞娘葬虎邱. 余嘗覽而憐之, 及至丹訪諸老隸, 隸及見諸妓過墓, 輒酌酒唱歌以娛神云. 但不能詳其死時事也. 一士人亦云, 有以願葬降仙臺爲題者, 益知其不誣也.”

생이 네 글자를 새긴 후 단양을 경계짓는 표식이 되었다. 또한 퇴계선생의 “푸른 물 붉은 산의 경계에, 맑은 바람 맑은 달의 누대라”는 시 일련이 있으나 저녁때가 되어 이 글귀를 찾을 시간 여유가 없었다. 말을 타고 수산역 마을에 이르러 숙박하였다. 마을은 불이 나서 수십 가구가 모두 재로 변하였다. 남녀노소가 길가 여기저기에 모여 울부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 장회나루를 거슬러 올라 북쪽 물가를 따라가니 강선대가 있었다. 강선대는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이였는데 이 또한 아름다운 경관이였다. 강선대 옆에는 단양군 기생 계향의 무덤이 있다. 계향은 죽기에 앞서 “나를 강선대에 묻어달라. 녀이라도 시인묵객과 함께 노닐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집안사람들이 그 유언대로 강선대에 장사지냈다. 어떤 사람은 강선대의 강(降)이라는 말이 강선(絳仙)에서 나왔는데, 강선은 곧 단양 기생의 이름이라고 말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¹⁷⁾

관암 홍경모(冠巖 洪敬謨, 1774~1851)는 구담과 강선대는 단양의 이름난 기생 두향이 노닐던 곳이고 죽게 되면 그 녀도 여기에서 즐길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얘기를 시작하였다. 문인과 시객들도 두향의 녀를 기리기 위해 한잔 술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향은 그 전제를 갖고 이곳에 무덤을 써줄 것을 부탁하고 강물에 뛰어내렸다는 얘기를 전한다. 하지만 왜 강물에 뛰어들어 죽어야 했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서사 자체가 다소 억지 설정이라는 느낌이 든다. <죽지사>나 <장진주>의 배치도 그저 기생 두향의 풍류를 즐긴 값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 이상의 송고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두향의 등장과 함께 퇴계도 등장하지만, 퇴계의 단양 관련 시가 인용될 뿐으로, 그 어떤 퇴계-두향 관련설도 드러나지 않는다.

17) 『研經齋全集』, 卷9, 「丹陽山水記」. “崖口刻退陶先生所寫丹邱洞門四大字. 丹字歷歷可辨. 地本清風而自先生寫後遂爲丹陽界標. 先生又寫碧水丹山地清風明月樓一聯而迫夕未暇覓也. 騎馬至水山驛村而宿. 村失火數十家皆爲灰燼. 男女老穉, 纍纍路傍, 呼號不已, 不覺慘然. 溯長淮而上其北岬, 有降仙臺. 臺可坐數百人, 亦佳境也. 傍有郡妓桂香塚. 桂香將死曰葬我於降仙臺, 魂得與騷人墨客遊也. 家人如其言葬之. 或言降從絳仙, 卽丹妓名, 未知孰是.” 성해응은 강선대에 묻힌 기생의 이름에 대해 계향(桂香)이라고 기술하면서도 혹시 그 이름이 강선(絳仙)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 ⑩ “언덕 위에 두향의 무덤이 있는데, 두향은 단향의 이름난 기생이었다. 가무를 즐겼고 산수를 좋아했다. 그녀는 배를 타고 강선대 위에 이르러 술을 마신 후 북받치는 마음에 일어나 춤을 추었다. 춤을 추고나서는 “구담 언덕과 강선대 위는 내가 노닐던 곳이니 나를 여기에 물어주오. 낮이라도 여기에서 즐길 것이니 시인묵객들이라면 어찌 한잔 술을 아끼겠는가”라고 말했다. 말을 마치자마자 강물에 뛰어내렸다. 마침내 강선대 북쪽에 장사지냈다고 한다. 이에 술 한 잔을 따르고 <죽지사> 일곱 곁을 지어 술을 권하였으며 또 연아에게 <장진주>를 불러 화답하게 하였다. 옥순봉 아래에 이르니, 너 댁 석봉이 우뚝 솟아 죽 늘어서 있다. 굽어보니 물에 잠긴 벽담이 그 빛은 맑고 깨끗하며 모습은 깎아지른 듯하다. 맑고 투명하고 빼어나고 매끄러운 모습이 새 죽순을 징발한 듯하다. 이에 퇴계가 옥순이라 이름 붙였다.¹⁸⁾ 퇴계는 ‘단구동문’이라는 네 글자를 벽면에 손으로 적어 넣었다. 옥순봉과 구담 사이에 작은 돌로 만들어진 두 대가 있는데, 속칭 농암이라 한다. 전면에는 퇴계의 짤막한 시 “푸른 물 붉은 산의 경계에, 맑은 바람 밝은 달의 누대라, 신선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홀로 쓸쓸히 배를 타고 돌아오네”라는 일절이 있다.¹⁹⁾

송서 강운(松西 姜樵, 1773~1834)은 1807년(순조 7) 정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1820년(순조 20) 10월, 친우 성퇴목, 이병원 등과 함께 단양을 유람하며 <유단산기>를 지었다. 1832년(순조 32) 종오헌(從吾軒)을 짓고 강학 및 저술활동에 임했으나 1834년(순조 34) 봄에 집에 불이 나서 경적과 저서가 모두 타 버리자 이에 대한 낙심으로 병이 악화되어 그해 4월에 세상을 떠났다.²⁰⁾ 강운은 토정 이지함(1517~ 1578)이 단양에서 학

18) 퇴계가 옥순봉(玉筍峯)이라는 이름을 직접 붙인 것에 대해서는 『退溪集』, 卷42, 「丹陽山水可遊者續記」 참조.

19) 『冠巖全書』, 冊19, 「舟下龜潭記」. “岸上有杜香塚, 杜即丹之名妓也. 善歌舞樂山水, 乘流至臺上, 酒後慷慨起舞, 舞罷乃曰龜潭之岸仙臺之上, 我所遊也, 藝我於是. 魂兮可娛, 而騷人韻士豈惜一杯酒乎. 言訖而墜水. 遂鑿于臺北云. 酌酒一盃, 綴竹枝詞七闋以侑之, 又令蓮娥唱將進酒之和. 到玉筍峯下, 四五石峯聳然離立. 俯蘸碧潭, 其色蒼白, 面面整削, 清瑩秀膩, 如新筍之抽發, 退溪名以玉筍. 手書丹邱洞門四字鐫於壁面, 玉筍龜潭之間, 有小石臺二級, 俗稱聲岩. 前面刻退溪小詩, 碧水丹山界, 清風明月樓. 仙人不可待, 惆悵獨歸舟一絕.”

20) 『日省錄』 1807年(純祖 7) 10月 4日. 『響山集』, 卷16, 「通訓大夫行世子侍講院弼善贈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松西先生姜府君行狀」.

문을 수련했다는 사실과 두향 관련 서사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두향 관련 서사는 나름대로 이어지지만 거기에 퇴계와의 연관설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 ① 강은 단양에서 구담까지 10리 거리이다. 강선대는 정중앙에 있다. 위아래와 그 주변을 둘러보니 즐겁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가서 머물며 왕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모두가 술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 강선대 옆에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 자못 아늑하고도 고요한 곳이다. 내가 말하기를 “이곳은 정자를 짓기 좋은 곳이다. 언젠가 정자를 짓는 자가 나올 것이다. 강선대에 책상을 만들 수도 있다. 참으로 그럴듯하고 기발한 발상이다. 강선대가 물에 비추어 기운 듯이 보인다. 돌난간으로 경계를 삼는다”고 하였다. 이에 이령이 이르기를 “일 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가로이 이런저런 생각을 털어놓는다. 옛날 두향이라는 관기가 있었다. 강선대에 물어달라고 청하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 시인묵객들이 왕왕 글을 지어 곡을 했다”고 한다.……옛날 토정 이지함이 여기에서 학문을 수련했다.²¹⁾

심암 조두순(心庵 趙斗淳, 1796~1870)의 경우는 기왕의 자료들 대부분과는 다르게 두향(두랑으로 표기)을 말하면서 퇴계-두향의 관계를 기정사실처럼 말하였다. 조두순의 기록에는 두향을 두랑이라 하였다. 하지만 시의 제목에는 두향이라 한 것을 보면 두랑은 두향과 다른 이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향에 대한 별칭 정도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향에 대한 얘기가 마치 퇴계의 시를 통해 전해지는 얘기로 보았는데, 그것은 퇴계의 “쓸쓸히 홀로 돌아가는 배[惘悵獨歸舟]”라는 시적 표현을 원용하여 마치 그 배가 퇴계-두향의 사랑을 매개하거나 상징하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끈이 그리 공고하다는 인상을 받기는 어렵다.

21) 『松西集』, 卷6, 「遊丹山記」. “江自丹邱至龜直十里相望, 臺正中, 上下其間, 可怡可愕, 向之所留悵往來者, 皆在杯觴談笑中, 臺傍有小阜頗深穩, 余曰, 此可亭, 異日有成之者, 臺可几案, 慎可曰然, 誠奇矣. 臺面水而傾耳, 石欄以限, 李令曰, 好事者間商量. 昔有郡妓杜香者, 講埋于此, 因投水, 韻士往往爲文以哭之云. ……昔土亭李公, 學修鍊于此.”

- ⑫ 퇴계의 시가 아니었더라면 누가 두랑의 이름을 알았겠는가. 두랑 또한 여류 가운데 빼어났으니 군자가 알아주는 영광이 있었다. 다행히 퇴계의 글로 인해 그녀의 행적이 알려지게 되었다. 단단한 입술에 한바탕 노래 소리 유창하고, 굳은 마음은 끝내 변치 않았다. 청산을 가는데 어찌 끝이 있겠는가. 죽고 난 후에 가장 푸른 곳에 머물게 되었다. 맑디맑은 강강이 지켜주고 우뚝 솟은 강선대가 떠받치고 있다. 곧은 냇이 어찌 어둡고 희미하라. 멋진 풍경을 장차 맞이할 것이니 꽃다운 풀은 비단치마와 같고 싸늘한 바람에 패옥소리 들린다. 무덤은 이미 황량해졌으나 아름다운 행적은 더욱 드러났다. “홀로 쓸쓸히 배를 타고 돌아가네”라는 시의 풍류를 통해 깊은 정을 느낄 수 있다.²²⁾

경여 이원진(景輿 李源進, 1823~1883)의 글은 1841년(헌종 7)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단양군수 퇴계로부터 300년이 흐른 시점에서 그 어떤 기록과도 달리, 퇴계-두향의 연애담을 사실로 제시한 글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단양 기생 두향이 퇴계를 직접 모시고 강선대에 올랐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퇴계-두향이 서로 시와 노래를 주고받는 장면까지 연출되었다. 강선대에 물어달라는 두향의 유언에 대해서도 “특히 기특하게 여길만했다 [其志尤可奇]”는 평을 붙인 것은 두향-퇴계의 연계·연동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다른 기록과 구분된다.

- ⑬ 강선대 남쪽에는 옛날부터 두향총이라는 이름의 무덤이 있다. 두향은 단양군의 명기이다. 일찍이 퇴계 선생을 모시고 강선대에 올랐는데, 퇴계 선생이 시를 짓자 두향이 이를 노래로 불러 서로 흡족해 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한 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두향이 죽음에 임하여 강선대가에 물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부탁은 특히 기특하게 여길만했다. 그 뒤에 고을 기생들이 강선대에 오르면 반드시 술을 한잔을 부려 강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1814년 가을에 감사 ○공²³⁾이 순시하다 들리, 한 줌 흙의

22) 『心庵遺稿』, 卷1, 「杜香墓」. “不有退翁詩, 誰識杜娘名. 娘亦女流秀, 得知君子榮. 幸踰龍門登, 行因驥尾成. 檀唇一浩唱, 栢心難終更. 青山去何限, 身後占最青. 淡淡長江護, 屹屹仙臺擎. 貞魂詎冥漠, 勝地要將迎. 芳草羅裙色, 冷風環珮聲. 荒墳既蕪沒, 芳躅彌彰明. 悵悵獨歸舟, 風流見高情.”

23) 1814년(순조 14) 가을 단양을 순시했던 충청감사는 조정철(趙貞喆)임을 확인할 수 있

무덤이 잡초에 묻혀 알아보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단양군에 명하여 봉분을 고쳐쌓게 하고 호장을 시켜 그 무덤에 고유하게 하였다.〔고유문이 읍지에 실려 있다.〕²⁴⁾

퇴계-두향 서사의 구성 과정에서 퇴계의 10대손 고계 이휘령(古溪 李彙寧, 1788~1861)과 운산 이휘재(雲山 李彙載, 1795~1875)의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퇴계의 10대손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이 언급하는 퇴계-두향 서사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휘령은 여러 일행과 함께 단양의 도화동, 구담, 강선대, 비봉산, 북창, 능강동, 옥순봉 등을 유람한 시²⁵⁾를 제시하면서, 특히 강선대를 주제로 한 시에서는 “두향의 외로운 무덤[杜香孤塚]”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두향의 무덤에 술잔을 올리고 두향의 혼을 달래 왔던 일[行人指點酌殘盃]”을 기록하였다. 당시 유람을 함께 가지 못했던 이휘재가 남겼던 두향 관련 언어 표상(孤墳, 杜香孤塚, 丹陽故婢杜香塚, 香魂)은 전술한 수촌 임방의 두향 관련 언어 우산(孤墳, 芳魂) 안에 들어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⑭ 고계옹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옥순봉과 구담으로부터 배를 타고 강선대에 이르러 그 밑에 배를 멈추고 장회 촌민 박순옥에 물어 단양의 고비 두향의 무덤에 술잔을 드리며 무덤을 잘 지켜주기를 부탁하고 돌아왔다고 하니, 내 비록 그들과 같이 배를 타지는 못했으나 고계 옹의 편지를 읽고 슬픈 마음이 들어 읍시 한 편을 읊어 그 일을 기록한다.: 두향의 혼

다. 조정철은 1813년 5월 27일에 발령받아 후임자 홍석주(洪碩周)가 부임(1815년 7월 4일)하기까지 충청감사를 지냈다. 조정철은 1814년 가을에 충청도 지역을 순시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1815년 1월에 올린 장계를 통해 “작년(1814년) 가을의 목화 농사의 흉작은 근래에 없던 흉년”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조정철은 1814년 가을 충청도 단양지역을 순시하면서 단양군에 명하여 두향의 무덤을 단장할 것과 그 무덤에 고유제를 지낼 것을 명했음을 알 수 있다(『純祖實錄』 1813년(純祖 13) 5월 27日; 『日省錄』 1815년(純祖 15) 1月 28日; 『純祖實錄』 1815년(純祖 15) 7月 4日; 『鶴下山人存稿』, 卷1, 「東遊錄」).

- 24) 『鶴下山人存稿』, 卷1, 「東遊錄」. “臺之南古稱有杜香塚. 香卽本郡名妓. 嘗侍遐溪先生, 登是臺, 先生有詩, 香輒歌而足之. 膾炙一時. 臨沒託瘞于臺畔, 其志尤可奇. 其後邑妓登臺, 必遙灑一盞以酌之云. 甲戌秋刺史○公巡過, 聞一抔土無沒難識, 命郡改封其墓, 使戶長題告其墓〔文載邑誌.〕” 이원진의 『학하산인존고』는 이태희, 앞의 논문, 238-239쪽에서 재인용함.
- 25) 『古溪集』, 卷2, 「答族弟德輿」.

은 강선대에 향기로운데/석자 외로운 무덤에 물결이 굽이치네./남포의 봄 시름에 풀빛조차 어두우니/달이 뜨면 학들도 응당 날아들리라./꽃다운 이름은 시와 노래에 실려 오고/옛일을 서로 전하며 술잔을 올리도다./마을 사람에게 잘 지켜주기를 부탁은 했건만/해는 저도 돌아오는 뱃길이 마냥 더디구나.²⁶⁾

운양 김윤식(雲養 金允植, 1835~1922)은 1859년(철종 10) 늦봄[上之十年己未暮春]에 네 고을(청풍, 단양, 영춘, 제천)을 유람하면서 승경을 기록했는데, 그 중의 한 기록이 두향에 대한 기록이다.²⁷⁾ 김윤식의 두향에 관한 기록 자료는 그가 “때로는 분을 느껴 표현하였고, 때로는 무료함을 달래려고 글을 지었고, 때로는 유람한 바를 기록하였고, 때로는 시를 주고받으면서 글을 지었다”²⁸⁾고 했을 때의 세 번째 경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윤식은 두향이 강물에 투신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두향을 퇴계의 정인이자 열녀에 비정했음을 알 수 있다. 김윤식은 다른 퇴계-두향 서사에서와는 달리 “한 곡조 공후의 한[一曲箜篌恨]”을 말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고조선 때 괭리자고(霍里子高)의 아내 여옥(麗玉)이 물에 빠져죽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노래 <공후인(箜篌引)>을 인용한 것으로, 두향의 죽음이 퇴계-두향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슬픔의 정서로 설명될 수밖에 없음을 형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 ⑮ 한 필 기다란 호수는 월나라 비단을 오린 듯, 봄바람이 언덕을 지나자 보리밭 물결이 일렁인다. 여울 가 가벼운 배는 한기할 때가 드물고, 안개 너머 먼 봉우리는 갈라진 곳이 많다. 이끼가 자라 그려진 선은 마치 비백 서체와도 같고, 뱃노래는 때때로 나뭇 캐는 노래와 뒤섞인다. 두향 무덤

26) 『雲山集』, 卷2, 「古溪竹樓諸公舟遊丹陽遂處有作歸後寄韻要余並和」. “古溪諸公自玉筍龜潭舟次降仙臺下. 問於長回村民朴順郁. 酌酒丹陽故婢杜香塚. 因托守護而歸. 余雖不同舟而見古溪翁書. 愴然興感詠一律以識. 香魂終古降仙臺, 三尺孤墳水上隈, 南浦春愁草自豔, 緱山月色鶴應來, 芳名不沒登歌詠, 異事相傳薦酒盃, 寄語村民須善護, 歸舟日暮却低回.”

27) 『雲養集』, 卷1, 「濕遊漫吟序」.

28) 『雲養集』, 「雲養集自序」. “或感憤而發, 或無聊而作, 或紀遊覽, 或出酬應.”

29) 이태희, 「관기 두향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열녀에 대한 찬사에서 상처받은 예술가의 진혼으로」, 『여성과 역사』 32, 한국여성사학회, 2020, 240쪽.

의 고운 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한 곡조 공후의 한은 어찌하면 좋은가.
{두향은 퇴계 선생이 단양군수로 있을 때의 수청기생이다. 강선대 강물에 투신하여 죽었다고 한다.}³⁰⁾

관찬서 『호서읍지』는 1871년(고종 8) 전국 규모의 읍지 편찬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충청도 지역의 읍지이다. 『호서읍지』 단양군 편에서는 당시 단양의 역사·교통·지리·현황·인물 관련 사항을 관찬서 편찬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관찬서의 이름으로 두향이라는 존재와 그 행적을 제시했다는 점, 그러나 거기에 퇴계 연관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⑩ 강선대 남쪽에는 예로부터 두향총이라 불리는 무덤이 있는데, 두향은 본 단양군의 이름난 기생이다. 죽음에 임하여 강선대 물가에 묻혀 그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했다. 그 후로 단양 고을의 기생들이 강선대에 오르면 반드시 술 한 잔을 따라 멀리 땅에 뿌리고 두향의 혼을 불러들였다고 한다.³¹⁾

이상의 16개 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퇴계-두향 관련 자료는 퇴계-두향의 연애담을 표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논조를 낮추어 말하더라도 퇴계-두향 연애담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서사일반에 의하면, 퇴계-두향 관련 직간접의 여러 서사자료가 확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특징의 몇몇 서사자료를 중심으로 퇴계-두향 서사가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는 한계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30) 『雲養集』, 卷1, 「長湖舟中」. “一疋長湖剪越羅, 東風過岸麥生波. 灘頭輕舫閑時少, 煙外遙峯缺處多. 苔線宛如飛白字, 漁謠時雜採青歌. 杜香芳草年年綠, 一曲笙篴恨奈何.(杜香退溪先生宰丹陽時房妓也. 投死于此水云.)”

31) 『湖西邑誌』, 冊16, 「丹陽」. “臺之南古稱有杜香塚卽本郡名妓. 臨死願埋臺畔以傳其名. 其後邑妓登是臺, 必遙灑一盞以酹之云.”

Ⅲ. 퇴계-두향 서사자료의 비판적 검토

퇴계-두향 관련 자료(①~④)를 분석한 결과, 단양-강선대-두향 관련의 여러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퇴계와 두향의 연계 가능성이 간혹 제시되기도 하지만, 퇴계-두향 연계설 자체가 전혀 거론되지 않는 기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퇴계-두향 서사자료 분석표

번호	이름	몰년	퇴계 두향 관련	강선대 관련성	특기사항	인적사항 기록년도 문헌출처
①	杜陽	20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양은 20세의 나이로 요절했다[二十而夭]고 기록. □ 강선대는 두양이 평생 시인묵객들과 즐겨놀던 곳[蓋其平生隨客遊宴之地]으로 표상. □ 사람들은 두양과 풍류를 즐긴 빛[風流儔]을 갖기 위해 강선대에 무덤을 써줌. 	水村 任瑩(1640~1724) 【1695】(숙종 21) 『水村集』, 卷3, 「杜陽墓」
②	-	22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호보가 1727년 시집에서 단양의 뱃사공과 노기로부터 직접 채록한 그보다 10년 전의 얘기[其死甫過十餘寒暑矣]. □ 단양의 한 기생[丹丘古有一妓]은 풍류와 운치가 못 사내들보다 뛰어났으나[風流韻格丈夫不若也], 22세의 나이로 병 없이 사망[年二十二不病而死]. 	四養齋 姜浩溍(1690~1778) 【1727】(영조 3) 『四養齋外集桑蓬錄』, 卷12, 「附上游四郡山水記」
③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없는 단양의 기생[丹丘之妓] □ 기생 이야기와 함께 취적봉의 '退溪詩刻'에 대한 얘기가 상호연관 없이 등장. 	東谿 趙龜命(1693~1737) 【1729】(영조 5) 『東谿集』, 卷2, 「追記東峽遊賞[己酉]」
④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 기생에 대한 언급 없음. □ 강선대와 퇴계에 대한 얘기는 등장한 반면, 두향 얘기는 아예 등장하지 않음. 	江漢 黃景源(1709~1787) 【1734】(영조 10) 『江漢集』, 卷1, 「龜潭」

⑤	杜香	×	△	○	<p>□ 이운영은 퇴계-두향 연관설을 제시하면서,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함 [未知信否].</p> <p>□ 퇴계의 '벽수단산계' 인용</p>	<p>丹陵 李胤永(1714~1759) 【1751】(영조 27) 『丹陵遺稿』, 卷11, 「降仙臺記」</p>
⑥	杜娘	×	×	○	<p>□ 두랑, 퇴계, 토정은 서로의 연관성 없이 각각 등장.</p> <p>□ 퇴계시필(“陶山詩筆翠松冷”)</p> <p>□ 토정조대(“土亭釣臺綠波淨”)</p>	<p>夢梧 金鍾秀(1728~1799) 【1751】(영조 27) 『夢梧集』, 卷1, 「東遊」</p>
⑦	杜香	×	×	○	<p>□ 두향과 강선대는 운명을 함께 하는 관계에 있음을 기록.</p> <p>□ 수춘 임방의 두향에 관한 시를 인용.</p>	<p>月巖 李匡呂(1720~1783) 【 - 】(-) 『李參奉集』, 卷1, 「江行書事[次唐人絕句韻]」</p>
⑧	杜陽	20세	×	○	<p>□ 두양은 20세의 나이로 병사[年二十病且死]</p> <p>□ 기생 두양은 못 남성과 풍류를 즐기는 존재[芳魂償得風流債]로 형용.</p>	<p>西河 任天常(1754~1822) 【1786】(영조 10) 『窮栢集』, 卷1, 「杜陽墓[并小叙]」</p>
⑨	桂香	×	×	○	<p>□ 두향이 아닌 계향의 이름으로 등장</p> <p>□ 계향은 생전에도 사후에도 시인 묵객[騷人墨客]과 어울렸던 존재로 형용.</p>	<p>研經齋 成海應(1760~1839) 【1804】(순조 4) 『研經齋全集』, 卷9, 「丹陽山水記」</p>
⑩	杜香	×	×	○	<p>□ 두향은 강선대 아래 몸을 던져 죽음(墜水)</p> <p>□ 퇴계는 '벽수단산계'와 '옥순봉' 관련 얘기로만 등장.</p>	<p>冠巖 洪敬謨(1774~1851) 【1810】(순조 10) 『冠巖全書』, 冊19, 「舟下龜潭記」</p>
⑪	杜香	×	×	○	<p>□ 두향은 강선대 아래 몸을 던져 죽음(投水)</p> <p>□ 단양은 토정 이지함의 학문 수련처로 등장.</p>	<p>松西 姜樾(1773~1834) 【1820】(순조 20) 『松西集』, 卷6, 「遊丹山記」</p>
⑫	杜娘	×	○	○	<p>□ 퇴계의 시를 통해 두랑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기록.</p> <p>□ ⑤[이운영]의 퇴계-두향 연애담(의심)에 이어 사실상 처음으로 퇴계-두향 연애담(확신)을 언급한 기록.</p>	<p>心庵 趙斗淳(1796~1870) 【1824】(순조 24) 『心庵遺稿』, 卷1, 「杜香墓」</p>
⑬	杜香	×	○	○	<p>□ 두향이 퇴계를 모시고 강선대에 올랐다고 기록.</p> <p>□ 퇴계와 두향 사이에 시를 짓고 노래 부르며 서로 즐겼다는 사실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음을 기록.</p>	<p>景輿 李源進(1823~1883) 【1841】(헌종 7) 『鶴下山人存稿』, 卷1, 「東遊錄」</p>

⑭	杜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향 관련 형용(“杜香孤塚”, “丹陽故婢杜香”) 제시. □ 퇴계의 10대손 이휘재를 퇴계-두향 서사의 주요 인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음. 	雲山 李彙載(1795~1875) 【1851】(철종 2) 『雲山集』, 卷2, 「古溪竹樓諸公舟遊丹陽逐處有作歸後寄韻要余並和」
⑮	杜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향은 강선대 강물[此水]에 몸을 던져 죽음(投死) □ 두향은 퇴계가 단양군수로 있을 때의 수청기생[房妓]으로 기록. 	雲養 金允植(1835 ~ 1922) 【1879】(철종 10) 『雲養集』, 卷1, 「長湖舟中」
⑯	杜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선대, 두향, 두향층에 대해 기술함. □ ⑫[조두순]·⑬[이원진]·⑮[김운식]와는 달리 두향-퇴계 연관설에 대한 언급 없음. 	官撰書 【1871】(고종 8) 『湖西邑誌』, 冊16, 「丹陽」

퇴계-두향 관련 자료(①~⑯)³²⁾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류한다면, 17세기 후반(①), 18세기 전반(②, ③, ④), 18세기 후반(⑤, ⑥, ⑦, ⑧), 19세기 전반(⑨, ⑩, ⑪, ⑫, ⑬), 19세기 후반(⑭, ⑮, ⑯)의 서사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퇴계와 두향의 관련 여부나 정도를 떠나서 1548년 기점으로부터 150년(정확히는 147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계-두향 서사가 기록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퇴계-두향 관련 자료(①~⑯)를 퇴계와 두향의 관련 여부나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분류한다면, 퇴계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두향만이 등장한 서사(①, ②, ⑦, ⑧, ⑨, ⑩, ⑭, ⑯), 두향이 아예 등장하지 않고 퇴계만이 등장한 서사(④), 퇴계와 두향이 등장하면서도 상호연계성 없이 기록된 서사(③, ⑥, ⑪), 퇴계와 두향의 연계성과 함께 연애담으로 이어지는 서사(⑤, ⑫, ⑬, ⑮)로 구분할 수 있다. 16개 서사자료 중에 퇴계-두향 서사에 대한 직접 정보를 갖춘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계-두향 서사가 구체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일수록 그 자료의 발생 시점은 사실상 19세기 전후반에 밀집되어있음을 확

32) 퇴계-두향 서사자료에 등장하는 단양 기생의 이름은 두양(①·⑧)-두랑(⑥·⑫)-계향(⑨)-두향(⑤·⑦·⑩·⑪·⑬·⑭·⑮·⑯)-미상(②·③)-존재없음(④)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퇴계-두향 서사에 대한 큰틀의 분류방식을 취할 경우에 한하여 ④를 제외한 두양-두랑-계향-미상 모듈을 두향의 이름꾸러미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인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1548년 시점으로부터 250년 이상의 시간차를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서사의 사실 여부를 신빙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① [임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①을 인용한 ⑧[임천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퇴계-두향 서사에 최초로 등장한 인물은 이름이 ‘두향’이 아니라 ‘두양’이다.³³⁾ 그리고 ①[임방]에 이은 ②[강호보]-③[조귀명]-④[황경원]에서는 아예 단양 기생의 이름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특히 조귀명-황경원은 함께 당대의 문장가로 알려진 존재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퇴계-두향 연계설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그 연계설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발생적으로 구체성과 정확성을 보장받아야 할 초기 기록 꾸러미에서 이처럼 기생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두향의 정체성이 그만큼 크게 흔들리는 것임을 말해준다. 두향의 이름은 확정적으로 전해온 게 아니라 두양과 두향으로 교차 표기될 정도로 모호한 존재이기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상 퇴계-두향 서사의 발생학적 불모성과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강호보]의 “나는 그 말이 그다지 믿기지 않았다[余殊未信也]”는 말은 단양의 한 뱃사공, 그리고 한 늙은 기생의 증언성 얘기를 듣고 이를 기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심리를 표상한 것인데, 그 전언과 증언 어

33) 임방과 임천상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676년(숙종 2) 무렵 청풍부사를 지냈던 연현 임상원(任相元, 1638~1697)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상원의 7촌 당숙이 임방(任望, 1640~1724)이며, 임상원의 고손이 임천상(任天常, 1754~1822)이다. 그 계보적 동질성은 퇴계-두향 관련 기록의 작성 과정에서도 관점의 공유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임방]-⑧[임천상]에 의하면, 단양 기생의 이름은 두양이었고, 그 두양은 20세에 사망했으며, 기생 두양은 기생의 이름값(風流價)에 걸맞게 못 남성(시인목객)과 풍류·향락을 즐긴 존재였다. 그런데 정비석은 퇴계-두향 서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①[임방]에 근거하면서도 그 핵심 정보에 유의하지 않은 채 퇴계-두향 서사를 유통시켰다. 그와 유사한 사례로는 강재철·홍성남·최인학(2011)의 경우도 ①[임방]을 사실상 유일한 “퇴계선생설화-기생에 대한 설화-두양묘” 항목에 소개하였는데, 이 역시 퇴계 관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를 옮겨 실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밀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서는 강재철·홍성남·최인학 편, 『퇴계선생설화』, 용인: NOSVOS, 2011, 246~247쪽 참조.

디에도 일단 두향의 이름으로 전개된 얘기가 없으며, 더더군다나 퇴계-두향 서사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³⁴⁾ ②[강호보]는 단양 기생 관련 가장 신빙성이 높은 채록 자료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강호보가 1727년 시점에서 단양의 뱃사공과 노기로부터 직접 채록한 그보다 10년 전의 얘기[其死甫過十餘寒暑矣]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양 기생의 생몰연대는 1695년경 출생에 1717년경 사망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덧붙이자면, 1717년에 충청도관찰사 윤헌주가 ‘강선대’라고 각자했고 석공 진삼용이 이를 새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이 역시 향후 단양의 관기에 대한 서사 분석에 참고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①~⑬ 자료 중에서 퇴계-두향 서사를 제시한 경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未知信否]”는 관점을 취했던 ⑤[이윤영]를 포함하여 ⑫[조두순]·⑬[이원진]·⑮[김윤식]가 전부이다. 16개 자료 대부분의 경우, 두향은 퇴계와는 무관한 서사를 갖고 있으며, 기생 본연의 이름값에 맞게끔 못 남성, 시인묵객과 풍류·향락을 즐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①: 風流債, ⑧: 芳魂償得風流債). 이러한 정황 근거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퇴계-두향 서사의 성립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계-두향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기록 자료가 19세기(⑫·⑬·⑮)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 서사의 발생사적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돌연변이성 서사의 구성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와 문제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유교사상의 본연을 벗어난 상태에서 그저 기생의 일생과 일상을 그리거나, 그 안의 미시적 작동 양상으로서의 낭만적이고도 애절한 사랑 얘기를 만들다 보니, 두향은 고단한 인생 내지는 어떤 슬픈 사연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도 강선대 강물에 몸을 던져 죽는 사건이 만들어

34) 『四養齋外集桑蓬錄』, 外集卷12, 「附上游四郡山水記」.

35) <단양군 단양소개 단성면: 강선대와 두향묘>

(<https://www.danyang.go.kr/dy21/>) 실록 기록사에 의하면, 1717년 2월 8일에 윤헌주(尹憲柱)를 충청도관찰사로 삼았다(肅宗實錄 1717年(肅宗 43) 2月 8日).

지기도 했다(⑬). ⑬[이원진]의 경우를 놓고 보면, 퇴계-두향 서사를 조립했던 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퇴계의 ‘그녀’이자 ‘정인’이었고 ‘열녀’였던 두향은 20세(①, ⑧), 22세(②)에 병명을 모른 채 죽었다는 단편 정보만이 서사의 구성 과정에 반영되기도 하였고, 19세 두향-48세 퇴계의 사랑이야기는 버전에 따라서는 두향이 퇴계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기생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평생을 수절하며 살다가 퇴계의 사망 소식에 강물에 뛰어들어 자결했다는 상상력이 발휘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쩌면 관찬서로서 단양 관련 기록을 가장 책임 있게 남길 입장에 있었던 ⑬[호서읍지]의 경우는 퇴계-두향 관련 서사가 다시 빠졌다는 점에서 어떤 계열성이나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⑤[이윤영]과 ⑥[김중수]의 글을 판독하기 위해서는 단릉 이윤영, 능호관 이인상, 몽촌 김중수 세 사람의 서사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세 사람은 1751년(영조 27) 사인암을 유람한 뒤 이를 기념하여 옛 글에서 관련 문구를 뽑아 사인암을 찬미한 글을 짓고 이를 이인상이 써서 암벽에 새겼다.³⁶⁾ 이들은 노론 명문가의 후손들로서 서로 가깝게 어울려 지내는 사이였다.

⑤ [이윤영]에 대한 논의에는 이기중(李箕重, 1697~1761)-이윤영(李胤永, 1714~1759)-이희천(李羲天, 1738~1771) 삼대에 대한 검토, 그리고 박지원-이윤영, 박지원-이희천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박지원(1737~1805)은 이윤영에게 『주역』을 배운 것을 계기로, 젊은 시절부터 그의 아들 이희천과 절친한 사이로 지냈다. 하지만, 박지원은 그의 벗 이

36) 이인상이 1751년(영조 27)에 이윤영, 김중수와 함께 사인암에 새긴 글은 다음과 같다: “먹줄을 텅진 듯 곧고 수평처럼 평평하다[繩直準仄]./옥색 빛과 쇠소리가 어울린다[玉色金聲]./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아지고[仰之彌高]/높고 큰 모양이 이를 데가 없도다[魏平無名]./신미년(1751년 영조 27) 봄 이윤영[胤之], 김중수[定夫], 이인상[元靈]이 짓다[辛未春胤之定夫元靈撰.] 이인상은 구담에 은거하는 삶을 구상하며 그곳에 다백운루(多白雲樓)를 짓고 부정(桴亭)을 만들어 물길을 오르내리며 노닐었고, 반도석에 대한 시에서 “신선의 수레는 오지 않고 밝은 달은 멀리 있으나[僊馭不來明月遠] 강물 위에 떠서 두 향가를 슬피 부른다[中流愁唱杜香歌]”고 하였다(『凌壺集』卷2, 「桴亭雜詩」). 이인상의 구담 관련 연구로는 김민영, 「이인상의 <구담소기> 연구」, 『국문학연구』 35, 국문학회, 2017, 265~289쪽 참조.

희천이 『명기집략』 사건으로 처형당하자³⁷⁾ 이에 대한 충격과 상심으로, 그 후로는 과거 공부를 전폐하고 말았다. 퇴계-두향 서사의 공간 단양은 기본적으로 신선·선계·도원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공간이었다. 일찍이 퇴계가 단양을 유람할 때 마침 현학(玄鶴)이 봉우리 중간에서 날아와 몇 차례 빙빙 돌다가 멀리 구름 낀 하늘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봉우리 아래를 ‘채운(彩雲)’, 가운데를 ‘현학(玄鶴)’, 위를 ‘오로(五老)’라고 이름 붙였다는 얘기와 연결된다.³⁸⁾ 문인 화가 이윤영은 사실상 퇴계-두향 서사의 초기 형태를 처음 제시한 인물인데, 그는 1751년(영조 27) 단양부사로 임명된 아버지 이기중을 찾아 단양에 갔다가 1751년 9월부터 1755년까지 5년 가까이 단양에 머물렀던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령(李令)의 “일 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가로이 이런저런 생각을 털어놓는다(好事者閒商量)”는 언급에 의하더라도, 신선·선계·도원 이미지의 공간 단양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만들어졌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서, 퇴계-두향 서사의 원형도 그렇게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퇴계-두향 서사를 맨 처음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⑤[이윤영]와 ⑩[강운]의 경우, 퇴계의 시 “푸른 물 붉은 산의 경계에, 맑은 바람 밝은 달의 누대라, 신선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홀로 쓸쓸히 배를 타고 돌아오네”라는 말을 인용 제시하였다. 그런데 ⑤[이윤영]는 이 시를 퇴계-두향 연애담의 증거인 것처럼 묘사한 반면, ⑩[강운]은 퇴계-두향 연애담을 아예 상정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위의 시에 두향의 역동성을 입히는 작업을 취하지 않았다.³⁹⁾

37) 청 강희제 때의 주린(朱璣)은 1696년에 『명기집략』(明紀輯略)을 편찬했는데, 이 책에는 태조 이성계의 계보를 잘못 기록하는 등 왕실을 욕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연암 박지원의 친구 이희천은 『명기집략』을 소장했다는 이유로 1771년(영조 47)에 청교교에서 교수형을 당했다(『英祖實錄』 1771年(英祖 47) 5月 26日).

38) 『退溪集』, 卷42, 「丹陽山水可遊者續記」. 삼산재 김이안(三山齋 金履安, 1722~ 1791)도 구담과 사인암에 대해, 현학(玄鶴)이 하늘을 날고 옥피리(玉簫) 소리 울려 퍼지는, 신선이 들고 나는 관문(壯哉神仙出入關)이라고 일컬었다(『三山齋集』, 卷1, 「龜潭」, 「舍人巖」).

39) 단양 군수 퇴계 이황이 지은 <단양쉬과청풍(丹陽倅過淸風)>은 퇴계가 단양의 경계에 있는 청풍 명월루의 경치를 읊은 시이다. 시에서 “푸른 물 붉은 산의 경계에(碧水丹山界,

⑥[김중수]과 ⑫[조두순]의 경우, 두향으로 알려진 단양 기생의 이름을 두랑(杜娘)으로 표기하였다. 16개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단양 기생의 이름에 대해서는 두양(①·⑧)-두랑(⑥·⑫)-계향(⑨)-두향(⑤·⑦·⑩·⑪·⑬·⑭·⑮·⑯)-미상(②·③)으로 확인된다. 이 중에서 [두-계열]의 기생 이름(두양-두랑-두향)은 중국문화에 더욱 밀착된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기생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궁중과 민간 어느 경우에도 [두-계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으며, 그것도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단양의 관기에 대해서만,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색적이다. 두향을 두랑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두향=두랑’임을 알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향≠두랑’인 경우도 있다.

호남 광주 의 환벽당(環碧堂)은 사촌 김윤제(沙村 金允悌, 1501~1572)가 부친 김후(金瑠)의 정자를 중수하여 건립한 정자인데, 환벽당의 구조물로 특징적인 것은 낚시터 조대(釣臺)가 만들어져있다는 점이다. 환벽당에 대

맑은 바람 맑은 달의 누대라[淸風明月樓], 신선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仙人不可待], 홀로 쓸쓸히 배를 타고 돌아오네[招恨獨歸舟]"라고 노래하였다. 서영보(徐榮輔, 1759~1816)에 의하면 단양군과 청풍군의 경우 단양군의 옥순봉 아래가 바로 단양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단양에서 청풍으로 향할 때에는 이곳에 대기하고 있는 청풍의 관선을 타고 청풍으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竹石館遺集』, 冊1, 「玉筍峯下是爲丹丘洞門淸風官艇來待于此用三淵韻」). 김윤식도 구담과 옥순봉은 예전에 단양이 아닌 청풍에 속했으나 퇴계가 단양군수로 있을 때에 단양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의미의 ‘단구동문(丹邱洞門)’ 네 글자를 옥순봉에 새겼는데, 그로 인하여 단양에 소속되었음을 기록하였다(『囊囊集』, 卷1, 「龜玉古詩一首[龜玉舊屬淸風退溪李先生作宰時刻丹邱洞門四字于玉筍峯因屬丹陽云]」). 1987년 이래 두향제가 열리는 장회나루 주차장(단양군 단성면)은 두향묘가 건너다보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보고 있다. 장회나루와 관련해서는 퇴계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퇴계는 1548년 6월 어느 날에 작성한 기록에서 “물이 장회나루 서쪽으로 흘러[水下長會灘西] 구봉 언덕에 부딪쳐 돌아[觸于龜峯之崖匯] 구담의 머리가 되고[而爲龜潭之首], 또 북으로 돌아 서쪽으로 꺾여서[又北轉西折] 구담의 허리가 되고[而爲龜潭之腰], 구담의 꼬리는 채운봉의 발치에서 다하였다[而潭之尾盡於彩雲峯之趾]"고 하였다(『退溪集』, 卷42, 「丹陽山水可遊者續記」). 두향제가 열리는 장회나루에서 구담봉은 지척의 거리에서 바라다 보이는 관계로 매년 이 시를 적어 놓고 두향제를 지내는데, 이 시에 대해 “푸른 물은 단양과 경계를 이루는데[靑水丹山界], 청풍에는 명월루가 있다 하네[淸風明月樓], 만나려던 신선은 기다려 주지 않아[仙人不可待], 실망 속에 외로이 배만 타고 돌아오네[招恨獨歸舟]"라고 번역 제시하였다. 위 번역의 ‘명월루’는 청풍의 ‘환벽루’를 일컫는다. 구담과 옥순봉에 대한 추가 논의는 윤지훈, 「청풍의 산수를 소재로 한 한문학 작품의 제특징: 구담과 옥순봉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72, 동방한문학회, 2017, 181~202쪽 참조.

해 석문 오이익(石門 吳以翼, 1618~1666)은 “세상 모든 일 슬픔이 배어 있으니[萬事人間不勝悲] 두랑도 옛날 모습 다시 보기 어렵도다[杜娘無復舊容姿]/봄바람 부는 밤 환벽당에서 서로 만나[相逢環碧春風夜]/그 옛날 젊어 놀던 시절을 함께 얘기하다보니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共說前遊涕自流]”는 시를 통해, 그리고 “피리 소리 높으니 작은 골짜기 가을이 찾아오고[一笛聲高小壑秋]/두랑의 거문고 타는 소리 사람들을 슬프게 한다[杜娘琴操使人愁]”는 시를 통해 두랑의 이름을 제시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⁴⁰⁾ 이때의 두랑은 단양의 관기 두향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향을 두랑이라고 표기했던 ⑥[김종수]의 경우와 두랑의 옛모습을 떠올리는 공간 호남 광주의 환벽당의 경우 공통점으로 낚시터 조대(釣臺)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단양군의 관기 두향의 존재,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조선시대 궁녀·의녀·기녀 등의 이름을 살펴보다도 [두-계열]의 이름은 희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보조하여 말하자면 단양의 관기 이름이 두양-두향-두랑으로 불리다가 시간의 흐름이 계속될수록 두향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기까지에는 자체동력보다는 외부의 간섭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⁴¹⁾

⑨[성해응]에서는 보통 두향으로 알려진 단양의 관기 이름을 계향이라고 표기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계향이라는 기명은 호남지방(전라도-

40) 『石門集』, 卷2, 「環碧堂次贈貞娘」, 「醉草[二首]」.

41) 궁중의 여관(女官)·여령(女伶)·차비(差備) 명단(『進宴儀軌』, 卷3, 「內進宴時侍衛各差備」) 및 실록 기사(『世祖實錄』 1456年(世祖 2) 9月 8日, 『仁祖實錄』 1647年(仁祖 25) 3月 8日)를 참고하여= 궁녀·의녀·기녀 등의 이름을 파악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란계열]: 友蘭, 翠蘭./[-매계열]: 瓊梅, 月梅./[-선계열]: 錦仙, 玉仙, 楚仙, 桂仙, 月仙./[-심계열]: 竹心, 蓮心./[-향계열]: 國香, 桂香, 錦香, 眞香, 蓮香, 月香, 仁香, 玉膚香./[-화계열]: 錦花, 桃花, 蓮花, 梅花, 梨花, 杏花, 琪花./[-옥계열]: 明玉, 瓊玉, 山玉./[-월계열]: 桂月, 弄月, 素月, 山月./[-홍계열]: 蓮紅, 淡紅, 點紅, 山紅, 春紅./[-연계열]: 淡蓮, 彩蓮./[-엽계열]: 玉葉, 竹葉, 綠葉, 蓮葉./[-주계열]: 明珠, 綠珠./[그밖]: 寶貝, 瓊貝, 錦喜, 玉喜, 寶喜, 福寶, 紅桃, 碧桃, 鳳分, 花容, 芙蓉, 柳綠, 花鳳, 素淡, 妍妍, 明荷, 正琪. 특히 [-향계열]의 이름도 많이 등장하지만 두향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두향은 특히 중국을 배경으로 한 [두-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비슷한 이름을 찾자면 두란향(杜蘭香) 정도를 찾을 수 있다(『世祖實錄』 1456年(世祖 2) 9月 8日).

부안)의 기생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서북지방(함경도-종성)의 기생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정도임을 감안한다면⁴²⁾, 성해응이 단양 기생을 얘기하면서 두향을 계향으로 표기한 것은 그것이 단순 표기 착오가 아니라면 의외의 이미지가 반영된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생물연대가 분명한 부안 기생 계향(1513~1550), 그리고 서계 박세당(西溪 朴世堂, 1629~1703)이 1666년(현종 7)에 북도병마평사로 부임할 때 지은 시(西溪集 참조)에 등장하는 종성의 기생 계향의 이름에 유의하면서, 성해응이 전해들은 단양 기생의 이름이 왜 두향이 아닌 계향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계향은 달의 이미지를 갖고있는 반면, 두향은 강선대와의 연관 속에서 선계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성해응이 분명 단양 기생 두향을 계향으로 표기한 것이라면, 이는 단양지역의 신선·선유 이미지의 구성에 “계화 향기(桂花香)”를 뜻하는 계화(桂花)-계향(桂香)의 이름이 연상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계향이라는 기생의 이름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⁴³⁾

⑨[성해응]와 ⑪[홍경모]과 ⑮[김윤식]의 경우, 옥순봉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퇴계가 옥순봉이라는 이름을 직접 붙인 사실에 대해서는, 1548년 “여름 5월에……화탄(花灘)을 거슬러 남쪽 언덕 절벽 아래로 따라 오르면, 그 위에 여러 봉우리를 깎아 세운 것이 죽순(竹筍) 모양 같고 높이가 천백 장(丈)이나 되며 우뚝하게 기둥처럼 버티고 서 있는데, 그 빛은 푸르기도 하고 창백하기도 하다. 푸른 등나무와 고목이 우거져 아득하고 침침한데 멀리서 볼 수는 있어도 오르는 못하겠다. 내가 옥순봉(玉筍峯)이라 이름 지은 것은 그 형상 때문이다”고 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⁴⁴⁾ 성해응은 “옥순봉은[玉筍峯也] 퇴계가

42) 『芝峯類說』, 卷14, 「妓妾」; 『西溪集』, 卷1, 「鍾城妓桂香北來聞名者惜其已老贈此」. 생물연대가 분명한 부안 기생 계향(1513~1550)은 계향(桂香)=계랑(桂娘)=계생(桂生) 등의 이름으로 표기되었고 호를 매창(梅窓)이라 하였다. 계향의 본명은 이향금(李香今)이었다. 계향은 시, 노래, 거문고로 이름이 난 기생이었다.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제4권』,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364~366쪽 참조.

43) 『阮堂全集』, 卷10, 「仙遊洞」.

44) 『退溪集』, 卷42, 「丹陽山水可遊者續記」.

불인 이름이다[並退溪所名也]. 강물은 이에 이르러 평광해진다[江流至此平曠]. 동구 석상에 단구동문 네 글자가 새겨져 있다[洞口石上刻丹邱洞門四字]. 역시 퇴계의 글씨이다[亦退溪筆也]”고 기록하였다.⁴⁵⁾ 퇴계가 옥순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玉笋峰者, 亦退陶先生之所命也”), ‘단구동문’ 네 자는 퇴계의 필적이라는 사실(“洞門有丹丘洞門四字, 此亦先生所刻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워낙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윤영의 글을 참고할만하다.⁴⁶⁾

홍경모는 두향과 퇴계를 등장시키면서도 두 사람은 무관한 존재로 기술하였다. 홍경모는 퇴계의 경우, ‘벽수단산계’와 ‘옥순봉’ 관련 주인공으로 부상시켰을 뿐이다.⁴⁷⁾ 김윤식은 시제를 풀이하면서 “구담봉과 옥순봉은 예전에 청풍에 속했다[龜玉舊屬淸風]. 퇴계 이선생이 군수로 있을 때에 ‘단구동문’이라는 네 글자를 옥순봉에 새겼는데[退溪李先生生宰時刻丹邱洞門四字于玉筍峯], 그로 인하여 단양에 소속되었다고 한다[因屬丹陽云]”고 하였다.⁴⁸⁾ 김윤식은 단양군수 퇴계에 대해 “누가 퇴계의 군수 시절을 청렴했다고 말하는가[孰謂退翁作宰廉]/금전은 사랑하지 않고 승경을 사랑했을 뿐[不愛金錢愛勝賞]/단구라는 일필로 동문을 진압하니[一筆丹邱鎮洞門]/마침내 이름난 구역을 단양 땅으로 들였고[遂把名區輸其壤]/청풍군수는 겨우 누대 하나를 차지했을 뿐이다[淸風太守但一樓]”라고 기술하였다.⁴⁹⁾

이태희는 단양의 강선대가 문인들의 글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의 일이며, 17세기 중반-후반에 지어진 강선대를 읊은 시들 모두 강선대의 선계 이미지를 묘사했을 뿐 두향에 관한 언급은 물론 그를 떠올

45) 『研經齋全集』, 卷50, 「記湖中山水」.

46) 『丹陵遺稿』, 卷11, 「玉笋峰記」.

47) 『冠巖全書』, 冊19, 「舟下龜潭記」.

48) 『雲陽集』, 卷1, 「龜玉古詩[一首]」.

49) 『雲陽集』, 卷1, 「寒碧樓」. 정비석은 『명기열전』에서 단양팔경의 선정 관련 사항을 말하였다. 정비석이 김윤식의 ‘전언’을 참고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김윤식이 부정확하게 나도는 퇴계-두향 서사를 잠작하여 이 부분을 기술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을사사화(1545)-정미사화(1547)로 이어지는 그 암흑한 시기에 두 고을의 군수가 서로 만나 군계의 변경에 관한 일을 담합하거나 어느 한쪽의 양해를 구할 성질의 것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는 무책임한 상상력의 발동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릴만한 뉘앙스도 없음에 주목하였다.⁵⁰⁾ 발생사의 관점에서 볼 때, 퇴계-두향 서사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두향(두랑, 두양, 계향)은 그 이름을 비롯한 정체성이 제대로 확보된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양-강선대를 배경으로 퇴계와 두향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이들은 각각 별도의 존재로 제시되며, 어떤 인연이나 상호 연관을 갖고 있다는 기록은 1548년 시점으로부터 더욱 시간차를 크게 갖는, 그리하여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몇몇 기록에 불과하다.

퇴계 관련 얘기에 두향이 빠지고 단양-청풍 관련 사항이나 인물이 대비적으로 또는 단독으로 등장하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⑥ [김종수의 퇴계 시필(“陶山詩筆翠松冷”) 및 토정 조대(“土亭釣臺綠波淨”)에 대한 기술과 ⑩ [강원의 토정의 학문수련처에 대한 기술이 대표적이다. 성암 이지번(省菴 李之蕃, 1508~1575)과 그의 동생 토정 이지함(土亭 李之菡, 1517~1578), 그리고 이지번의 아들 아계 이산해(鵝溪 李山海, 1539~1609)가 단양 서사에 등장⁵¹⁾하며, 특히 이지함이 퇴계와 함께 단양 관련 기록

50) 이태희, 「관키 두향을 보는 두 가지 시산: 열녀에 대한 찬사에서 상처받은 예술가의 진혼으로」, 『여성과 역사』 32, 한국여성사학회, 2020, 225~253쪽, 특히 227쪽.

51) 『선조수정실록』의 이지번의 졸기(1575.12.1.)에는 “아들 이산해는 어릴 적에 신동으로 일컬어졌는데 윤원형이 자기의 딸을 시집보내려 하자, 이지번이 즉시 벼슬을 버리고 아우 이지함과 함께 단양의 구담(龜潭) 곁에 가 살면서 열심히 학문을 닦고 담박한 생활을 하며 만족스럽게 스스로를 즐기니, 사람들이 그를 구선(龜仙)이라 불렀다. 이황이 그와 벗하여 도학을 권면하였다. 금상 초년에 청풍군수를 제수하여 옛날 은거하던 곳에서 가깝도록 하였는데, 이황이 강요하여 취임했는데 무리하게 하지 않고도 청정하게 다스렸다. 그가 떠나가자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여 벼슬을 세워 덕을 기렸으며, 후인들은 모두 그의 풍절을 숭상하였다”고 하였다(『宣祖修正實錄』 1575年(宣祖 8) 12月. 前內資寺正李之蕃卒記). 동생 이지함의 형 이지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선조수정실록』의 이지함의 졸기(1578.7.1.)를 참조(『宣祖修正實錄』 1578年(宣祖 11) 7月 牙山縣監李之菡卒記). 단양군수 퇴계 이황과 청풍군수 성암 이지번의 연계를 통한 단양팔경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지번이 청풍군수를 지낸 것은 단양군수 퇴계보다 21년 후인 1569년의 일이어서 연대가 맞지 않은데다가 조선시대의 지방관들이 국가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고을의 행정 관할을 변경·수정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정석태, 「퇴계 이황 이야기의 서사화 양상: 단양의 기생 두향과 풍기의 대장장이 배운 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37, 전북사학회, 2010, 109~138쪽). 금계 황준량의 글을 통해 단양에서의 이지번-이지함 형제, 이지번-이산해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56년(명종 11)에 이지번이 이황의 권유로 벼슬을 버리고 구담봉(龜潭峰)에 암자를 짓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 구옹(龜翁)·구선(龜仙)이라 불렸던 사실 등에 대해서는 『錦溪集』, 內集卷3, 「贈李上舍山海來觀龜翁」, 「過龜潭寄而盛」, 「次龜翁」 참조. 그 중에서

에 등장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비석의 퇴계-두향에 대한 소설적 형용⁵²⁾이 유포된 이후, 우리는 단양 기생 두향이 퇴계의 정인으로서 정절을 지키다 퇴계 사후에 자결한 열녀라고 인식해왔다. 하지만 두향은 ②[강호보의 1727년의 증언적 기록]에 의거할 때, 18세기초 1717년 무렵(1727년-10년=1717년)에 있었던 일로, 22세 단양의 한 기생이 병 없이 사망하였다고 나오는데, 그 기생은 그저 못 남성을 상대했던 기생이었고, 거기에서 누군가의 ‘그녀’, ‘정인’, ‘열녀’ 이미지를 찾는 일은 사실상 가능한 일의 영역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⑭[이휘재]의 경우와 관련하여 이태희(2020: 240)는 퇴계의 10대 봉사손 이휘령(李彙寧, 1788~1861)이 두향의 무덤을 방문하여 강신주를 붓고 부근 마을 사람에게 무덤을 지키는 것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이휘령의 집안 동생 이휘재(李彙載, 1795~1875)가 1851년 무렵에 청풍부사로 재임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편 기사(『哲宗實錄』 1851年(哲宗 2) 3月 22日)에 주목하면서 이를 1851년 무렵의 일이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더하여 ⑫[조두순]·⑬[이원진]·⑮[김윤식]의 글과 ⑭[이휘령]의 행적의 종합을 통해, 19세기에는 퇴계와 두향의 연애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로 믿어졌으며 두향은 퇴계의 ‘정인’이라는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열녀’ 이미지까지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았다.⁵³⁾ 하지만 이휘령-이휘재의 조

도 특히 황준량은 이황-이지번에 대해 “고요함을 좋아하는 퇴계 이황은 고향으로 돌아 갔고[愛靜退翁還故隱] 이름을 숨긴 구옹 이지번은 홀로 바위에서 잠을 잤네[逃名龜老獨眠巖]”라고 그들 각자의 삶을 회고하였다(『錦溪集』, 內集卷3, 「次龜翁」).

- 52) 정비석의 소설적 형용이 시작된 것은 1974년이다. 정비석은 이후 퇴계-두향 서사를 보급하는데 앞장섰고, 이는 정순목, 유홍준, 최인호 등의 글에 사실상 그대로 옮겨갔다. 정비석의 퇴계-두향 서사에 대해서는 정비석, 『명기열전7: 제22화 단양기 두향, 제23화 강계기 무은』, 서울: 이우출판사, 1977; 정비석, 『퇴계일화선』, 대구: 국제퇴계학회 경북지부, 1988 참조. 그리고 정비석의 계보를 이은 정순목, 유홍준, 최인호의 서사에 대해서는 정순목, 『퇴계평전』, 서울: 지식산업사, 1987;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말하지 않는 것과의 대화』, 서울: 창비, 1997;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 남한강편』, 서울: 창비, 2015; 최인호, 「유림(287)-제3부 군자유종 제1장 명기두향」, 서울신문 2005년 3월 3일 참조.
- 53) 이태희(앞의 논문, 2020, 240~241쪽)는 ⑭[이휘재]의 기록을 1851년의 기록으로 보았으나 그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휘재가 “내가 청풍에 있을 때[余在淸風]”를 전제

합 어디에도 두향 관련 형용(杜香孤塚, 丹陽故婢杜香塚)이 제시되었을 뿐이고, 퇴계-두향 연계설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만 가지고 보면, ⑫[조두순]·⑬[이원진]·⑮[김윤식]에서 알 수 있듯이, 퇴계-두향 서사의 근거는 19세기 전중반(⑫: 1824, ⑬: 1841, ⑮: 1859)에 시작된 것이며, 그마저도 단양 기생의 이름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⑫: 두랑, ⑭: 두향, ⑮: 두향). 어떤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두향이라는 이름의 단양 기생이 퇴계와 동시대를 살면서 서로 만나 연애담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⁵⁴⁾ 정비석이 퇴계-두향 서사를 작성하던 시점에서 크게 주목했던 자료는 ①[임방]-⑦[이광려]-⑭[이휘재]이고, 특히 ⑭에 유의했지만, ⑭의 그 어디에도 정비석이 연계 서술코자 했던 사항, 즉 “그로 미루어보면 퇴계의 가문에서도 조상의 명예를 더럽힐까 두려워, 비록 내놓고 (두향을) 제사를 지내주지는 못했을망정 대대로 내려오며 두향의 무덤을 끊임없이 보살펴온 것만은 부인 못할 사실이었다”⁵⁵⁾고 한 기술은 기록 자료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한 소설적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개 자료 중 퇴계-두향 연관성을 기술한 자료는 많아야 4개 정도이다 (⑤: △, ⑫: ○, ⑬: ○, ⑮: ○). 그 4개의 경우도 시간차를 놓고 보면

로 한 뒤, “종형 이휘령이 화성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宗兄古溪翁往華城] 청풍을 들렀다 [歸抵本府]는 점, 그리고 그 때 이휘령이 “단양 유람을 떠났다[將遊丹山]”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그 시기는 이휘재가 청풍부사로 재직 중일 때였을 것으로 보인다(『雲山集』, 卷2, 「古溪竹樓諸公舟遊丹陽逐處有作歸後寄韻要余並和」). 하지만 이휘재가 1851년(철종 2) 시점에 청풍부사로 재직 중이었다는 사실과, 이휘재의 종형 이휘령이 1851년(철종 2) 4월 16일자로 동래부사로 발령받았다는 단편 정보만을 가지고서 ⑭[이휘재]가 1851년의 기록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哲宗實錄』 1851年(哲宗 2) 3月 22日, 『哲宗實錄』 1851年(哲宗 2) 4月 16日).

54) 퇴계와 두향 사이의 로맨스 및 서사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김연중, 「퇴계선생의 삶에 관한 허구와 진실」, 국립중앙박물관 2010년 하반기 인문학 명사초청 토요특강 (2010.7.24.); 김연중, 「퇴계의 행적과 일화의 여러 양상」, 『퇴계학보』 138, 퇴계학연구원, 2015, 107~157쪽; 정석태, 「퇴계 이황 이야기의 서사화 양상: 단양의 기생 두향과 풍기의 대장장이 배운 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37, 2010, 전북사학회, 109~138쪽 참조.

55) 정비석, 『명기열전7: 제22화 단양기 두향, 제23화 강계기 무운』, 서울: 이우출판사, 1977, 24~25쪽.

1548년 단양군수 퇴계와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연애담의 구체성이 높아지는 특이 양상이 드러난다. 발생사적 근거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에서 뒤늦게 퇴계-두향 관련 사랑 이야기가 상상력을 통해 구체성이 가미되는 양상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퇴계-두향의 연애담은 사실상 상정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개연성 없는 허구였고, 무책임한 상상력의 작동에 불과한 것이었다.

IV. 맺음말

퇴계-두향 서사가 어느 정도의 역사적 사실성을 담보하는가의 문제를 짚기 위해서는, 응당 퇴계-두향 관련 서사자료의 판독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사자료의 분석 결과, 두향이라는 존재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퇴계-두향의 연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데다가, 기록 자료 간의 일관성과 계열성을 갖춘 의미역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사실 여부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문학적 상상력에 낭만의 필치가 가미되어 만들어진 허구적 토대, 그리고 이를 근거로 삼은 이런저런 상상력이 서사의 활성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퇴계-두향 서사의 작성 및 유포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는 정비석을 들 수 있고, 그 서사를 사실상 그대로 옮겨 기술했던 경우로 정순목, 유홍준, 최인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퇴계-두향 서사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기에 소설적 형용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퇴계-두향 서사의 불가능성과 허구성에 대한 논의는 김연종과 정석태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바 있다. 퇴계-두향 서사는 그저 문학적 상상력의 발휘 내지는 개연성 있는 허구의 세계를 그리는 작업에 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퇴계의 인격, 퇴계학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격절과 괴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도 하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퇴계-두향 서사의 무책임의 계보를 본격 비판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퇴계·퇴계학의 정체성에 대한 정밀 탐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학술적 논의를 이어가는 일은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건강성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퇴계를 그저 사랑, 낭만, 연애담의 주인공으로 그려내고 거기에 두향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소위 퇴계의 인정·가화·인간성을 발견하자는 얘기는 어떤 관점과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일이다. 퇴계의 인격에 두향의 이미지를 입히는 작업은 도통관념(도학사상, 절의정신)을 본질로 하는 퇴계학의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다.

서사나 스토리텔링의 붐을 안고 이런저런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그럴듯한 형용을 드러내면서 유통되는 현실에서 역사인물을 다룰 때는 ‘역사에 없는 사실’을 생산·조립하여 ‘개연성 있는 허구’를 만들어내는 일은 곤란한 것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 허구는 개연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 역사인물 연구 영역에서 애초부터 상정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에 관한 스토리텔링은 역사리텔링의 문제일 것이며, 이는 왜곡·굴절된 기억을 교정·정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퇴계-두향 스토리텔링도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역사 리텔링의 대상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퇴계와 두향을 역사적 소재로 연결시켜 역사의 문화상품화 과정에 집중하다보면, 이는 퇴계 이해 및 퇴계학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문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분명 비판적 극복을 요하는 과제 영역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본격 논의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退溪集』, 『錦溪集』, 『芝峯類說』, 『石門集』, 『西溪集』, 『水村集』, 『四養齋外集桑蓬錄』, 『東谿集』, 『江漢集』, 『凌壺集』, 『丹陵遺稿』, 『夢梧集』, 『李參奉集』, 『三山齋集』, 『窮悟集』, 『竹石館遺集』, 『研經齋全集』, 『松西集』, 『冠巖全書』, 『阮堂全集』, 『古溪集』, 『雲山集』, 『心庵遺稿』, 『鶴下山人存稿』, 『雲養集』, 『世祖實錄』, 『宣祖修正實錄』, 『仁祖實錄』, 『肅宗實錄』, 『哲宗實錄』, 『日省錄』, 『湖西邑誌』, 『進宴儀軌』
한국고전종합DB(<http://www.itkc.or.kr>)
- 강재철·홍성남·최인학 편, 『퇴계선생실화』, 용인: NOSVOS, 2011.
- 김민영, 「이인상의 <구담소기> 연구」, 『국문학연구』 35, 국문학회, 2017, 265~289쪽.
- 김연중, 「퇴계선생의 삶에 관한 허구와 진실」, 국립중앙박물관 2010년 하반기 인문학 명사초청 토요일특강(2010.7.24.).
- _____, 「퇴계의 행적과 일화의 여러 양상」, 『퇴계학보』 138, 퇴계학연구원, 2015, 107~157쪽.
- 김현룡, 『한국고전실화 제4책』,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 신익철·권오영·박정혜·임치균·조윤희 역, 『18세기 연행록 기사 집성: 서적·서화 편』,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3: 말하지 않는 것과의 대화』, 서울: 창비, 1997.
- _____,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 남한강편』, 서울: 창비, 2015.
- 윤지훈, 「청풍의 산수를 소재로 한 한문학 작품의 제특징: 구담과 옥순봉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72, 동방한문학회, 2017, 181~202쪽.
- 이태희, 「관기 두향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열녀에 대한 찬사에서 상처받은 예술가의 진혼으로」, 『여성과 역사』 32, 한국여성사학회, 2020, 225~253쪽.
- 정비석, 『명기열전7: 제22화 단양기 두향: 제23화 강계기 무운』, 서울: 이우출판사, 1977.
- _____, 『퇴계일화선』, 대구: 국제퇴계학회경북지부, 1988.
- 정석태, 「퇴계 이황 이야기의 서사화 양상: 단양 기생 두향과 풍기의 대장장이 배순 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37, 전북사학회, 2010, 109~138쪽.
- 정순목, 『퇴계평전』, 서울: 지식산업사, 1987.
- 조영민, 「단양 관련 인물과 한시」, 『개신어문연구』 30, 개신어문학회, 2009, 130~154쪽.
- 최인호, 「유림(287)-제3부 군자유중 제1장 명기두향」, 서울신문 2005년 3월 3일.
「산수실경 뮤지컬 ‘사모’ 교과서에 실려」, 대구매일, 2011.6.21.
<단양군 단양소개 단성면: 강선대와 두향묘>
(<https://www.danyang.go.kr/dy21/>)

Abstract**Review of Toegye-Doohyang related Narrative Materials**

Park, Kyoon-Seop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oegye Yi Hwang served as Danyang-gun Governor from January to September 1548. At this time, the rumor that Doohyang and Toegye fell in love with each other began to spread at some point. The narrative related to Toegye- Doohyang is problematic in that it is not based on a strict interpretation and response to related record data. Danyang, Chungcheongbuk-do, has emerged as the site of the Toegye-Doohyang narrative, and many people accept the narrative as based on historical facts. In Danyang, since 1987, the Doohyang Festival has been held as an annual event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Danyang Cultural Center and Danyang-gun Office. Therefore, in this study, a rigorous discussion of the facts was attempted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and critical review, focusing on the records related to Toegye-Doohyang.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can be said that the Toegye-Doohyang narrative did not have its own power in both probability and historicality.

Keywords: Toegye, Doohyang, Toegye-Doohyang narrative, Doohyang Festival, time series analysis.

논문 투고일: 2023년 03월 25일
심사 완료일: 2023년 04월 09일
계재 확정일: 2023년 04월 17일